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2)

연세미주총동문회보

www. USAYonsei. com 2019 YONSEI@gmail. com 제 17호 2020 년 5 월 20 일

▌발행인: 미주 총동문회장 김원자 ▌편집: 출판/미디어 국장 배미순, 차장 김수현 ▌디자인: 박 철

연세총동문회 60년 발자취

세브란스 동창회

세브란스 동창회가 언제부터 결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19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교우회란 이름으로 매년 졸업식을 즈음해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또한 교우회 주최로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세브란스 교우회보>도 발간하여 학술논문의 발표, 학회 참관기, 학교 소식, 교직원 동정, 동창 소식 등을 알렸다. 동창회의 초창기는 제1회 졸업생인 홍석후 동문이 회장을 맡아 이끌었다.

1923년 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에비슨 공적을 기념하기 위한 에비슨 동상 건립위원회를 조직하고 의연금을 모금했다.
1928년 3월 21일 졸업식날 정기총회를 열었다. 에비슨 동상 제막식, 신축병원 낙성식 등이 동시에 열려 성대한 기념행사를 했으며 학술강연회도 개최했다.
1929년 대구 동창회지부를 결성한 것을 계기로 3인 이상의 동창이 거주하는 곳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방활동과 의료봉사에 협조를 도왔다. 3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명예회장 홍석후, 회장 이용설, 부회장 최동 등 임원을 선출했고, 이때 세브란스 교가가 선정됐다.
1934년 동창회 활약으로 모교 후원회 기금을 모금하여 3만여 원으로 기초학교실을 신축했다.
1935년 3월 13일 제26회 정기총회를 열어, 전 임원의 유임을 결의했고, 동창회비는 매년 3원으로 결정했다.

연희동문회

1923년 3월 24일 연희의 제5회 졸업식이 끝난 후 동창 30여 명이 모교 식당에 모여 졸업생 친목기관 설치를 의논할 때 김형주(상과 1년)가 '우리 졸업생이 100명에 달하는데 연락기관이 없으니 이제 상설기관을 조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초대 간부는 회장 김원벽, 부회장 김형주를 선출했다.

1924년 3월 15일 제1회 정기총회를 열었고, 신입회원 26명(문과11명, 상과 12명, 수리과 3명)이 가입했다.
1925년 3월 14일 제2회 정기총회를 열었고, 회장 최상현이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됐다.
1931년 3월 14일 제8회 총회에서 매년 모교 도서관에 도서 기증 결의에 따라 톨스토이전집 22권(당시 시가 30원 60전)을 구입해 기증했고, 회보 발간을 위해 준비위원을 결성하고, 동문 파송이사 1인의 증원을 이사회에 요청해 승인 받았다.
1932년 3월 2일 제9회 정기총회는 모교 본관 집회소에서 개최됐고, 동문회보는 1년에 1회 이상 속간하기로 했다.
1933년 3월 11일 제10회 정기총회는 시내 명월관에서 열렸고, 회장 노준탁, 부회장 최봉칙 임원을 선출했다.

1936년 임시총회를 열어 모교 창립 25주년 기념사업으로 체육관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회원마다 50원 이상의 의연금을 거두기로 했다.

1937년 6월 20일 수원지회가 설립됐다.
1938년 3월 총회에서 회장 신봉조, 부회장 이원철이 선임되었다.

1939년 5월 동경지회, 7월에 광주지회와 신경지회, 10월에 장연지회가 각각 설치됐다.
1940년 기본적립금은 1,664.89원이었으며 회원은 총 1,040명이었다.

1944년 4월부터 일제가 연희를 강점하고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라고 개칭했으며 동문회 운영권까지 강탈했다. 당시 교장이던 가라지마는 동문회 적립금까지 모두 유용했고, 동문회 활동이 정지상태에 놓이게 됐지만, 동문회는 재조직되어 갈홍기 동문이 회장을 맡았다.

1946년 3월 17일 이화여고 강당에서 연희동문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고, 학교 운영난에 대해 100만원을 8월 안으로 기부하기도 결의했다. 회장 이묘묵, 부회장 최규남 등이 선임됐다.

1946년 4월 26일 해방 후, 첫 창립기념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고 동문회에서는 모교 후원책으로 30여만 원의 재정적 협조를 했다.

1949년 5월 31일 소공동 봉래각에서 연희대학교 후원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증축비 100만원을 예산한 바 설경동 20만원, 계병호 10만원, 독고선 10만원, 윤영선 15만원 등의 기부로 120만원이 그 자리에서 모였다. 이 때 교수들도 봉급의 2.5퍼센트를 떼어 증축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1952년 4월 3일 625 전쟁 피난지 부산 영도 남항국민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별도의 재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대전, 마산, 전주, 광주, 군산 등 5개 지부 설치를 결의했다. 회장 정일형, 부회장 독고선이 선출됐다.

1954년 4월 24일 부산 해군장교구락부에서 하와이 교포들이 모금한 본교 여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김정순으로부터 전달받고 초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여학생기숙사를 그 해 10월 개관 후, '알로하'라 명명했다. 7월 3일 동문회보 2천6백부를 발행해 배부했고, 9월 15일 <연희동연록> 1천부를 발간해 동문에게 배부했는데 이는 1941년 발간 후 13년만에 간행한 것이다.

1954년 10월 2일 동문회 임시총회는 기념관 신축비로 1천5백만원을 보조한다는 것과 원두우 동상 및 원한경 묘비건립을 결의했다.

1955년 4월 22일 창립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원두우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창립기념행사 후, 본교 소강당에서 동문회 총회가 열렸다. 명예회장 백낙준, 회장 이원철이 임원으로 선정됐다.
기념관(학생회관) 건축기금 모금은 계속되어 그 해 9월 16일 1,447,500원을 모았다.

1956년 6월 16일 임원회에서 직업별 동문 분과회를 조직하는데 합의했고, 11월 29일 연우 경제구락부가 정식 발족했다. 한편, 1956년 5월 창립기념을 계기로 학교는 모교일을 제정하여 졸업 25주년이 되는 동문들의 재상봉 행사를 만들어 모교와 동문들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첫 모교일 행사는 1931년 졸업 동문들이 주재하였다.
1956년 10월 9일 개최된 임원회에서 모교의 교명을 '연세대학교'로 건의하고, 언론인 구락부의 결성을 촉진하기로 결의했다.
1957년 연희동문회 정기총회는 졸업식날인 3월 2일 모교 청경관에서 개최됐고,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용우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6월 21일 동문회 임원회에서 연세대학교 동문회로 발족하자는 제의가 채택됐다. 연희와 세브란스의 합병으로 인해 두 대학 동문회의 통합을 위한 예비 친선 모임은 활발히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연세대학교 동문회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통합하여 연세대학교로 발족함에 따라 1960년 4월 4일 연희대학교 동문회와 세브란스 동창회가 통합함으로써 이뤄졌다.

1960년 4월 4일 한청빌딩에서 연세동문회 창립 평의원회가 열렸다. 연세동문회 규칙을 제정하고, 임원선거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회장 이원철을 선출했다. 4월 16일 제2회 임원회를 한국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동연록 인쇄와 지부순회에 관해 논의했고, 5월 14일 창립기념일 행사에 관해 협의했다.
1964년 11월 26일 한청빌딩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모교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학생회관 건축비 모금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
1965년 5월 31일 평의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회장 이용설 부회장 김윤경이 선임됐다.

1965년 6월 18일 한청빌딩 동문회 사무실에서 평의원회가 열려 동문회 입회비를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969년 5월 20일 모교 경영대학원 강당에서 동문회 규약 개정에 따른 첫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박동규가 신임회장으로 피선되었다.
1971년 8월 2일 아서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동문회보의 간행을 위한 토의에 들어가 명칭:연세동문회보, 크기:타브로이드판 16면, 부수:1만부 등을 결의했다. 9월 7일 아서원에서 연세동문회보 간행에 대해 회보의 본문은 한글 사용을 위주로 하되 이름은 한자로 할 것, 제호는 <연세동문회보>로 하고, 휘호는 저명인사에게 의뢰할 것 등을 결의했다. 12월 7일 아서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홈커밍 데이 초청자를 졸업후 15주년, 25주년, 35주년, 45주년으로 하자는 안건을 결의 했다.
1973년 6월 30일 모교 경영대학원 강당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회장 김명회가 선출됐다. 1977년 6월 25일 모교 경영대학원 강당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 김용우의 유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981년 7월 11일 모교 경영대학원 강당에서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방우영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9월 2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원들은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2억원 기금 모금과 동연록 재발간하여 배부 등 활동을 다짐했다.

1981년 9월 30일 방우영 회장실에서 임원회를 열었다. 이날 중요안건으로 기금 조성목표 2억 원, 기금모금을 위한 '연세의 밤 개최'를 결의했다. 1981년 12월 2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5백명, 회비 5만원과 1982년도판 동연록 발행에 대해 발행부수: 1만부, 발행예정일 1982년 3월, 발간비 4천만원 등을 결정했다.

1983년 9월 1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방우영의 재추대를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연세 100주년 기념사업과 동문회관 건립을 계획했다.

1984년 7월 5일 모교 영빈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6월 30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연세 100주년 기념관 취지문>을 공고한 사실 등 경과보고가 있은 후 모금방법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10월 1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회 규정 및 연세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후원회 회장이 100주년 기념관 건립에 대한 취지문을 동문들에게 알렸다.

한편, 동문회는 1993년 5월 8일 연세동문회관을 봉헌했다. 1981년 방우영 회장이 취임하면서 동문회관 건립을 제안했으며, 1987년 본격적인 기금 모금과 건축설계 등이 시작됐다. 연면적 2천90평 규모로, 총공사비는 72억2천5백만 원이 들었다.

1999년 5월 연세창립 1백14주년을 맞아 총동문회가 주관한 노천극장 확장 사업은 총공사비 70억 원으로 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연 문화의 장으로 거듭났다.
동문들의 모교 사랑은 후배들에게도 이어져 2001년 (재)연세동문장학회를 설립했다.
등록금 전액은 물론 매달 교제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규모로 많은 후배들이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백8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약 35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동문회는 2008년 11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총동문회로 변경했다. 이것은 동문수의 증가와 더불어 각 단과대학 동문회의 규모와 행사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역대 회장
제1대 이원철 (수물과) 1960 ~ 1962
제2대 박용준 (의과) 1962 ~ 1963
제3대 이환신 (문과) 1963 ~ 1965
제4대 이용설 (의과) 1965 ~ 1967
제5-7대 박동규 (상과) 1967 ~ 1973
제8대 김명회 (정외과) 1973 ~ 1975
제9-11대 김용우 (수물과) 1975 ~ 1981
제12-19대 방우영 (경제과) 1981 ~ 1997
제20-21대 김우중 (경제과) 1997 ~ 2000
제22-23대 박정구 (법학과) 2000 ~ 2002
제24-25 이병무 (경영학과) 2002 ~ 2008
제26-29 박삼구 (경제과) 2008 ~ 현재

제 21 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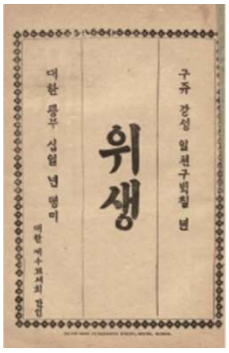
진리와 자유를 바탕으로 국가와 연세발전을 위한 헌신 기대

전염병 유행 속의 세브란스

▲ 여인석(의학 84입)
모교 의사학과 교수

작년 가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증이 어느새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세브란스는 이처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돌이켜 살펴보는 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크고 작은 전염병이 유행했으나 이 글에서는 1895년 유행한 콜레라와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스페인 독감 유행시 세브란스에 관련해 간략히 정리했다.

콜레라 맞선 에비슨 박사
위생 수칙 정리한 소책자도 제작



▲ 위생 소책자

콜레라는 19세기를 대표하는 전염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를 통해 여러 차례 세계적으로 유행했으며, 국지적인 유행은 수없이 많았다. 조선도 19세기 초반부터 수시로 발생하는 콜레라의 유행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1895년에 유행한 콜레라도 그 중 하나였다.

청일전쟁이 끝난 직후인 1895년 여름, 만주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콜레라가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퍼졌다. 이미 여러 차례 콜레라를 경험해서 그 무서움을 알고 있던 조선 정부는 콜레라 방역의 책임을 당시 제중원 원장으로 일하던 에비슨에게 맡겼다.

부탁을 받은 에비슨은 당시 서울에 와있던 선교사들에게 요청해 일종의 위생부를 조직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산에 콜레라 환자 수용소를 만들었고, 심한 설사를 주 증상으로 하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소금물을 주사 하여 탈수 방지와 전해질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콜레라가 오염된 물로 전염되는 질병임을 알리고,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소독하는 예방적 조치도 취했다. 또 콜레라에 대한 미신적인 관념을 바꾸기 위해 위생수칙 등을 정리한 소책자를 수만 부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교회 모임을 통해 위생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콜레라가 귀신이 아니라 작은 세균에 의해 생긴다는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시내 곳곳에 붙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이전에 비해 희생자의 수도 훨씬 적었다. 또 방역 과정에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에비슨을 비롯한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기독교가 전염병 유행의 한가운데서 방역의 중심이 되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오늘날 코로나 유행의 와중에 일부 교회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여 발병의 온상이 됨으로써 사회적 지탄을 받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여겨진다.

스페인 독감 관련 논문 <JAMA>게재한 스코필드 박사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스페인 독감이다. 1918~19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의 대유행은 요즘 코로나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환되고 있다. 스페인 독감은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도 유행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한 사람은 다름아닌 당시 세브란스의전의 세균학 교수로 있던 스코필드 박사였다.

스코필드 박사는 1889년 3월 15일, 럭비의 발상지인 영국 워릭셔(Warwickshire)주 럭비(Rugby)시에서 출생하였다. 1907년 그는 혼자서 캐나다로 이민하였고, 1910년 토론토에 있는 온타리오 수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그는 온타리오주 보건국 산하의 세균학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1911년에는 온타리오 수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14년에는 모교의 세균학 강사가 되었다.

▲ 에비슨 스코필드와 의대 학생들

1916년 이른 봄 세브란스연합 의학교의 에비슨 교장의 요청을 받은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 8월 초, 그의 아내 엘리스와 함께 캐나다를 출발하여, 그 해 10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그 스스로 석호필(石虎弼)이라는 이름도 지었다. 돌 석, 호랑이 호, 도울 필. 석은 돌과 같은 굳건한 의지를 나타내며, 호는 호랑이 같은 용맹과 비판정신을 의미하고, 필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신의 인생관을 담았다. 더욱이 알약을 가리키는 'pill'과 발음이 같아 자신이 의학을 공부한다는 것까지 나타내 준다며 평생 자신의 한국 이름을 아꼈다.

1916년 10월 한국에 도착한 스코필드는 4년여 동안 세브란스에서 세균학과 위생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는 평소 의학도가 지식인으로서 비판정신과 사회적 실천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에게서 세균학을 배웠던 신현창, 이용설 등과 같은 제자들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 자신도 실천적 의학자로서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3·1운동의 비폭력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일제에 의한 수촌리와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을 폭로하기도 했다. 1920년 그는 일제에 의해 캐나다로 강제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 온타리오 수의과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헌신했다.
1958년 은퇴 후에는 한국에서 다시 교편을 잡았다. 한국 사회에서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나, 세균학자로서 그가 세브란스 교수로 있을 당시 세계를 강타했던 스페인 독감에 대한 논문을 써서 세계적인 학술지 <JAMA>에 실은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한국에서의 유행성 독감과 그 병인(Pandemic influenza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etiology)'이란 제목의 논문을 1919 년 4월 미국의학 회지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스페인 독감은 1918년 가을부터 한국에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페인 독감이 유럽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보았으며, 당시 인구의 25~50%가 걸렸던 것으로 추측했다. 또 이 논문에서 스코필드 박사는 세균학자로서 스페인 독감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여러 실험을 한 결과를 실었다. 당시 세균보다는 훨씬 작은 바이러스의 실체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원인을 확실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러 실험과 추론을 통해 '필터를 통과할 정도의 작은 세균'이 그 원인체일 것이라는 직관적 결론을 내림으로써 진실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갔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브란스는 과거 세계적 전염병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에 방역활동에 앞장서서 많은 동포들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또한 전염병의 원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오늘날 코로나 감염증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세브란스는 이러한 과거의 자랑스런 유산을 바탕으로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하는 그 소명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프리카 Rwanda선교 사역 보고

죠이센터 건축과 청소년 직업 훈련에 전념

김흥수 목사(정외 59)가 그의 아내 이미자 박사(간호 58)와 함께 2014년에 아프리카 르완다를 방문해 1 년간 선교 사역을 시작한지 벌써 7 년이 되었다.

김목사 부부는 "르완다 땅에 첫 발을 내 디디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는 순간, '르완다의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훈련 시키라' 는 성령님의 강한 도전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선교 기간은 2014년 7월 - 2015년 7 월 (1년간)이었으며,선교 장소는 Kigali, Rwanda 수도였다. 선교 사역은 이미자 박사가 르완다 대학 교수들 교육, 훈련, 지도를 담당했고, 김흥수 목사가 르완다 원주민 가정 방문과 심방 전도를 담당했다.

이에 대해 "지난 7년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도 보내주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김흥수 목사 내외는 밝혔다.

특히 김목사는 "하나님께서 체력과 재력을 허락해 주시면 금년말에 르완다를 다시 방문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김 목사는 지난 17년간 직접녹음한 성경 테이프 선교를 실시, 약18,000세트 (13만5천달러상당)를 미국과 한국에서 무료로 보급한 바있다.

7 년간 실시한 르완다 선교 사역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선교 기간 : 2014년 7월 - 2015년 7 월 (1 년간)
- 선교 장소 : Kigali, Rwanda 수도
- 선교 사역 :
  김미자 박사 : 르완다 대학 교수들 교육, 훈련, 지도
  김흥수 목사 : 르완다 원주민 가정 방문 심방 전도

A. 건축 사역 :

죠이센터(Joy Center): 총 건축 비용 25만 달러 현금 지급-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빈촌에 2 에이커의 대지(땅)를 3만달러에 구입해 건물 및 시설들을 신축하였 그 이름을 죠이 센터로 명명하였다. (은퇴 후에 우리 부부의 별장으로 플로리다에 조그마한 콘도를 사려고 준비했던 25만 달러가 르완다 청소년들을 위한 별장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1. 청소년 지도자 훈련 대 강당 (Youth Leadership Training Center) : 170명 좌석
2. 직업 훈련 교육관 (Vocational Training Center) : 부엌, 사무실, 교실 5 개, 화장실
3.소형 축구장(Mini Soccer Field) : Joy Center 축구팀을 구성해 매주 연습하고 있음.
4. 자동차 40 대 주차장 : Parking Lots for 40 cars
5. 입구 정원에 3 개의 국기 게양대 (한국기, 르완다 국기, 미국 국기) : 3 Flag-poles in the Garden
6. 아름다운 정원 : Beautiful Garden
7. 식수 공급 대형 물통 : Big Drinking Water Tank (총 비용 1만 달러)

#1

#3

#5

Fig. 6. Distributing cookies and drinks to children by Korean volunteers at the J
Center
정성식사 제공

#6

#7

B. 원주민 가정 방문 전도 사역

: Village Visitation Program

김흥수 목사가 원주민 지역 대표자들과 통역이 함께 매주 평균 3-4 가정씩 1년간 약 268 가정을 심방하여 성경공부, 기도모임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참석한 가정에게 비누, 설탕, 빵, 과자가 들어있는 사랑의 선물 봉투를 배부함.

C. 장학금 지급 : 총 1만 5천 달러의 스칼라십 지급 고등학생 5명, 대학생 5명 등 총 10명을 선택하여 4년간 전학비를 지급해 줌. 현재 (2020년 4월) 그들 모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 상태임.

* 1 년간 김 목사 통역으로 봉사하였던 원주민 청년에게 박사 학위 기간동안 전 장학금 (4천 달러)을 지급함.

D. 직업 교육반 실시 : Vocational Classes 총비용 약 4만 달러

1. 컴퓨터 교실 : Computer Classes (컴퓨터 40대)
2. 재봉틀 교실 : Sewing Machine Classes(재봉틀 40 대)
3. 용접 교실 : Welding Classes (10 명)
4. 목공(목수) 교실 : Carpentry Classes 금년내에 시작을 계획하고 있음. (비용 약 1만 달러 예상)

- 참고로 재봉틀 교실과 컴퓨터 교실에서는 벌써 졸업생이 나와서 직장을 얻고 그 수입의 십일조를 학교에 헌금함으로써 그 돈으로 후배들이 계속해서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컴퓨터 교실

재봉틀 교실

용접 교실

1848년은 시카고의 '신의 한 수' (1)

▲김신 교수 (영문 63)

1836 년 말 /1837 년 초에 전국을 강타한 경제불황(The Panic of 1837)으로 시카고에 개인파산(bankruptcy)의 봇물이 터진 가운데 1837년 3월 4일 공식 출범한 시카고의 초대 시장 옥덴(William B. Ogden)은 취임식 전부터 시카고의 기름종이들에게서 "바닥난 시의 재정 상황을 직시해라. 법적 파산 외에는 길이 없다" 며 시카고 시의 파산 신청 압박을 엄청 받았다. 펑크 난 부동산 (토지) 붐으로 세금수입이 바닥을 쳤고, 그나마 기대했던 운하 건설은 일리노이 주정부의 재정악화로 '하는 둥 마는 둥' 했으니 시카고 핑크 빛 비전보다는 단기적 이윤추구에 몰입해 있던 대다수의 유지들에게 '파산'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옥덴 시장은, '경제불황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있다' 며 무섭게 확장되는 미국 마켓자본주의 경제에서 교역은 증대되기 마련이라 설득에 설득을 반복하며, 더디지만 조금씩 대도시의 기반을 다졌다. 1837년의 경제불황은 1844년이 되어서야 반전되는데, 1842년 일리노이 주정부가 파산, 운하공사가 2년 넘게 전면 중단되었다. 이때, 폭동 일보직전의 (시카고) 주민회의는 옥덴시장의 명 연설로 무마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만약 옥덴시장이 없었다면, 시카고는 태어나자 곧장 증발되지 않았을까? 옥덴시장의 재임 기간은 1년이 안되는 8개월이었지만, 그는 1880년대까지 자타가 인정하는 시카고의 실세 중에 The 실세였다.

11년 간의 와신상담 끝에 드디어 대박이 터진 1848년, 시카고는 명실상부한 '교역의 교차로'로 도약한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아는 시카고 (모던 시카고)는 1848 년에 시작되었다", "시카고의 기원은 1848년이다" 한다. 좀 무리한 주장이지만, 시카고에게 1848년은 '신의 한 수' 그것도 '큰 한 수'였음은 확실하다. 1848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런걸까?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1) 물품 운송 수단(transportation)발달과 (2) 보존/분배시스템, 사업체(상점)의 발전이 1848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1) 1848 년 1 월 전보(telegraph)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1848 년 3 월 Chicago Board of Trade(시카고상품거래소)가 조직되었으며, (3)1848 년 4 월 10 일 일리노이-미시간운하가 완공,개통되었고, (4)1848년 11월 철도 서비스가 힘차게 시작되었다. 오늘은, 물품 운송 수단 발전을 (일리노이-미시간) 운하 개통과 철도서비스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번 칼럼에서 물품 보존과 분배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다.

<u>첫 째; 일리노이-미시간 운하 개통</u>: 불황 속에서 그나마 시카고를 붙잡아 준 일리노이-미시간 운하 건설은 '산 너머 산' 그 자체였다. 1836년 착공되며 시카고의 이민자 유입을 유발했던 이 운하 공사는 1842년에서 1844년까지는 일리노이 주정부의 파산으로 전면중단되기도 했고, 공사재개도 (거덜난 주 재정으로 인해) 시카고 리더들이 운하를 위한 특별 bond를 발행하여 할 수 있었다. 평평한 지역에서 96마일을 뚫는 운하공사가 12년이나 걸렸으니… (참고로 1825년에 개통한 Erie Canal은 333마일, 8년의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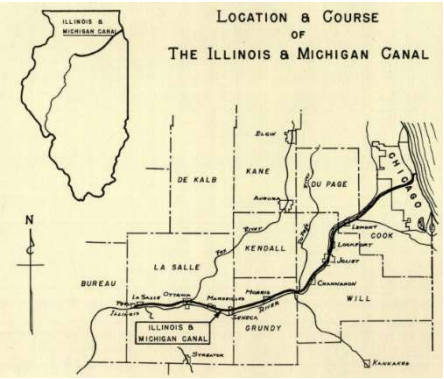
여하간에, 일리노이-미시간 운하는 1848년 4월10일 완공, 4월 16일 뉴욕을 출발한 여객선 *General Fry* 가 이 운하를 통해 뉴올리언스로 향했고, 곧 이어 4월 23일 화물선*General Thornton*이 뉴올르(x)리안스에서 싣고 온 설탕과 다른 곡물들을 시카고에서 버팔로로 향한 스팀선박에 옮겨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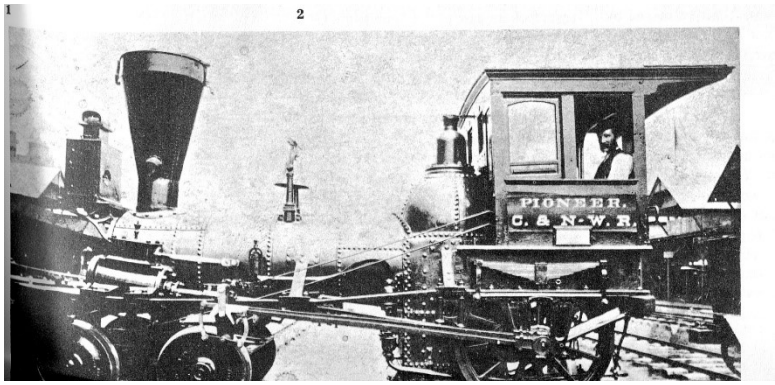
또한, 링컨이 연방국회에서 이 운하 개통 기념 공식연설을 하였다. 이렇게, 이 운하는 인구 이동(특히 뉴욕에 도착한 유럽 이민자들)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목재와 공산품을 서부로, 중서부/남부 내륙에서 생산된 곡물을 미 동부/유럽으로 유통시키며, 시카고를 진정한 뉴욕 시와 뉴올리언스를 물길로 잇는 '교역의 교차로'가 되게 하였다. 이 운하 개통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당시 중서부의 최대 교역 도시였던 세인트루이스였다. 운하 개통 첫 해에 곡물 거래가 전년도의 반 토막이 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였다.

두번째; 철도 서비스 개시. 1847년 시카고에는 철로(railroad track)가 전혀 없었는데, 그 10년후인 1857년에는 하루 100대의 기차가 드나들어 시카고가 미국의(세계의) 철도센터가 되어 아직까지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카고에 철도를 끌어들인 일등공신은 단연코 초대 시장 옥덴과 상원의원 더글러스(Stephen Douglas). 이 두 사람은 철도의 경제성과 철도와 운하의 시너지 효과를 10,000명이 모인1847년 River & Harbor Convention에서 열심히 설파하였다.

그래도, 운하가 개통되었는데, 왜 철도가 필요하냐며, 시카고 시내의 철로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 당시 시카고 시의 서쪽 끝인 Kinzie/Halsted 기차역에서 서쪽으로10마일의 철로를 놓는 일만 허락했던 시카고의 유지들, 1848년11월20일 12년 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한 기차(Pioneer)가 시카고를 떠나 지금의 옥팔 근처에서 밀(wheat)과 가죽 모피를 적재하고 단 시간내에 다시 시카고로 돌아온 Galena and Chicago Union Railroad Co. 와 같은 길을 왕래하며 대기하고 있던 수십대의 웨건에 적재된 물품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보고는 부랴부랴 시카고 시내의 철로 공사를 허가해 주는 해프닝도 있었다.
시카고의 철로사업은 주로 2 회사가 전담했다. (1) 서/북부와 시카고를 잇는 역할을 한 Galena & Chicago Union. 옥덴이 이끈 이 회사는 시카고에서 미시시피강과 위스콘신까지 커버하는 860마일 철로를 소유하며 후에 Chicago & North Western Railway(CNWR)로 확대 통합된다. (2) 더글러스가 주도한Illinois Central (IC)은 동/남부와 시카고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옥덴은 이 철도사업의 주도로 시카고 city builder 명성뿐 아니라, 후에 더글러스와 함께 대륙간 철도사업 (transcontinental railroad)에 참여하면서 Rail King of the West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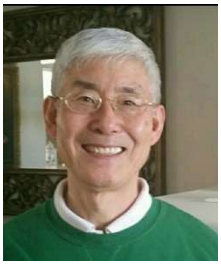
물품운송에 있어 철도는 (1) 운하보다 편리(거리단축, 적재용이)하고, (2) 일단 철로를 설치만 하면 되어서, 시장 지역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별로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시카고지형과 철로 건설은 찰떡궁합인데, 더글러스 상원의원 (Stephen Douglas)의 노력으로 시카고가 미국의 동서를 잇는 철도의 교차점이 되었고, 철도와 운하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시카고는 미 중서부의 최대도시가 된다. 때마침, 멕시코 전쟁 승리로 텍사스/캘리포니아/워싱톤 지역을 쟁취, 현재의 미국의 국경이 확정되니 운하와 철도를 한데 묶은 시카고의 교역의 중심지 입지는 탄탄대로를 걷는다.
1848-1854 년 사이에 시카고 인구가 2만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75,000명으로 늘어났고(1846년 14,000명;1850년 29,963명) 시카고에서의 물품 교역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였으며 지리적으로도 시카고 시가 서쪽과 북쪽으로 확대/팽창한다. 물론, 동쪽으로는 미시간 호수가 버티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





▲Illinois&Michigan 운하(좌), 당시의 기차(우)

그리움만 남은 청송대의 낭만



▲옥태환 교수

▲약력 및 경력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68학번, 75년 졸업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역사학 박사
University of Maryland, Asian Division, Fulltime Lecturer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조정실장, 북한인권센터소장
국무총라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사무국장
KBS 북한의인권 MC, 시사해설위원
서울신문 초청 칼럼니스트
서울여자대학교 겸임교수
KEI of America, Washington D.C., Visiting Fellow

연대 영문과에서 배운 과목 중 고희를 넘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강의는 오화섭 교수님의 섹스피어 작품들에 관한 강의다. 당시 교수님께서는 안식년 때 런던에 가셔서 섹스피어 연극들을 직접 보신 후 세세한 장면 묘사까지 해주시면서 명 강의를 해주셨다. 또한 너희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영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섹스피어 전용 관에 가서 연극을 관람하되 가능하면 대사를 많이 외어서 가야만 제대로 감상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다. 강의를 들을 때는 꼭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직장생활 하면서 두 번이나 영국에 출장을 갔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한 번도 섹스피어연극을 직접 관람하지 못한 것은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다.

69년 초가을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는 굴다리를 지나서 백양로를 올라가면 양옆으로 코스모스 꽃이 만발하여 캠퍼스에 낭만의 정취를 더해주곤 했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신 후 강의를 시작하시기전 뜬금없이 당시 복학생인 최 인호 선배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코스모스가 만발 한때 착실히 수업에 들어온 여러분은 졸업 후 대기업 사원, 은행원등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살겠지만, 캠퍼스 낭만에 흠뻑 젖어 수업시간도 잊어버리고 백양로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최군 같은 학생이 앞으로 연대 영문과를 빛낼 인물이 될 거라고 예언하시기도 했다. 당시 최인호 선배는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당선되어서 소설가로 두각을 서서히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후 백양로를 오르내리며 잔디밭에 비스듬히 누워 코스모스와 초가을 맑은 하늘을 보며 명상에 잠겨있던 최 선배를 우연히 한두 번 정도 보게 되었는데 아마 교수님도 그 모습을 보신 후 수업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 하셨구나하고 생각했다.

당시 우리 과에는 부산 출신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학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늘 혼자서 다니면서 오직 독서삼매경에만 빠져있었는데, 관심서적도 사회주의 관련 서적이 많아서 모처럼 대화를 시도해도 사회주의에 문외한인 우리와는 대화차원도 좀 다르다고 느꼈다. 그래도 나와는 같은 경상도 출신이라 비교적 가깝게 지냈는데, 한번은 여름방학 때 마산 가는 길에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해서 부산에 들렀다. 내 생각에는 사회주의에 심취한 것으로 보아서 평범하거나 가난한 집안 일거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가정집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3층집에 어마 어마한 크기의 정원 잔디밭을 보고 기겁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친구가 현재 강남 좌파의 시조새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3학년 봄 학기가 거의 끝날 때 쯤 으로 기억한다. 이친구가 하루는 첫째시간이 끝난 후 청송대 개울에 맥주 캔 4개를 물에 담가 두었으니 마시러 가자고 했다. 마침 다음 강의까지는 2시간이 비어 있는데다 다음 강의가 학창시절 캠퍼스 낭만을 흠뻑 즐기라는 오화섭 교수님 강의니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나를 포함 영문과 친구 3명이 이 친구를 따라 청송대로 가니 개울물 풀 밑으로 맥주가 차갑게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이친구가 가져온 카세트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베토벤 전원 교향곡을 들으며 한 시간 반 정도 청송대 개울 옆에서 풀 향기와 맥주를 함께 마시며 캠퍼스 낭만을 흠뻑 즐긴 후 수업에 들어갔다.

세 사람은 얼굴에 별로 표시가 없었는데 간이 좀 좋지 않았던 한 친구는 얼굴이 너무 뻘게서 혹시 교수님이 알아차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우리는 제일 뒤쪽 구석진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책만 보면서 강의를 들었다. 당시 교수님의 셱스피어 강의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문과 보다 다른 학과 학생들이 더 많이 수강 하고 있어 빈자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다른 학생은 다나가고 우리를 가리키면서 저 끝에 있는 영문과 학생 4명은 의논할 일이 있으니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 순간 우리는 들켰구나하고 당황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우리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친구들아 아침부터 어디서 술을 마셨어 하고 물으셨다.

이에 부산 친구는 본인이 맥주를 청송대 개울에 담가두고 나머지 친구들을 청송대로 꼬여서 술을 마시게 했으니 자신만 벌해 달라고 말했다. 교수님은 청송대도 학교의 일부인데 교내에서 술을 마시면 정학이고, 더구나 술을 먹고 수업에 들어오면 퇴학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후 강의는 출석하지 말고 빨리 캠퍼스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가라고 타일러 주시고 강의실을 떠나셨다.

당시 학생 몇 명이 언더우드 동상 손에 동전 올리기 내기를 하다가 지나가던 모 교수님에게 들켜서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한 학기 정학처분을 받는 등 학칙이 매우 엄하게 적용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모른 척 강의를 계속하셨고, 강의가 끝나자 영문과 일로 상의 할게 있는 것처럼 우리를 남게 하시고 다른 학생들이 모두 강의실을 떠난 후 우리에게 다가와 다른 교수님들에게 들키기 전에 학교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라고 하신 것이었다.

그 다음 학기 시작하기 전 나는 군에 입대하여 3년 동안 교수님을 뵙지 못했고 4학년에 복학하니 교수님은 문과대학장직을 수행하고 계셨다. 학사일로 항상 바쁘실 것 같아서 복교 후에도 학장실에 인사를 가지 않고 나름 졸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연히 언더우드 동상 옆을 지나다 교수님과 마주쳐서 인사를 드렸더니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옥군 아직 졸업을 안했나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 주셨다. 교수님께서는 나의 앞으로 진로와 계획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으신 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학장실로 연락하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만남이 교수님과의 마지막 인연이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 도 교수님을 찾아뵙지 못했고 우연히 신문에서 읽은 모 동료 교수님의 수필에서 오화섭 교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어 나는 하루 종일 일손을 놓고 넋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창밖 하늘을 보면서 교수님을 그리워했다. 북한산을 유난히 사랑하셨던 교수님은 입원실에 병문안오신 등산을 함께하시던 동료교수님에게 북한산에서 늘 마시던 약수를 한 모금 먹고 싶다고 하셨고 며칠 후 동료교수님이 가져오신 약수를 들이키시고는 아주 기뻐하셨는데 그 3일후 운명을 달리 하셨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니 학창시절 청송대에서 함께 낭만을 즐기던 친구들과도 하나하나 이별을 하게 되어 이제는 그리움과 외로움만 뼈 속 가득히 남아있다. 간이 좋지 않았던 친구는 삼환기업에서 인도네시아지점에 근무하다 풍토병에 걸려 유명을 달리했고 또 다른 친구는 삼성에서 중역을 지내다 퇴임 후 암으로 얼마 전 작고했다고 한다. 부산 친구는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소식을 오래 전에 들었지만 생사를 알 수 없다. 어느듯 나도 고희를 넘기니 스승님과 친구들만 잃는 게 아니다. 이제는 청력도 나빠져서 가끔 추억을 떠올리며 듣던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도 더이상 듣지 못한다. 이제 내 곁에 남아 있는 것은 청송대의 낭만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뿐...

연세대학교 135주년 기념식 개최

‘진리와 자유를 향한 연세의 도전’ 기념식은 온라인 녹화 중계로 진행

의학대상 수상자인 곽영희 동문은 시카고 거주로 행사 참석이 불가하여 언니가 대신 수상 하였음.

의학대상에 곽영희 교수

▲ 곽영희 박사 (의학 82졸)와 의학대상 상패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는 5월 9일(토) 창립 1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창립 135주년을 맞아 <VISION-YONSEI 150>을 선포했다. ‘진리와 자유를 향한 연세의 도전’을 비전으로 제시한 연세대는 ‘도전과 선도(Excellence)’, ‘창의와 혁신(Innovation)’, ‘공존과 헌신(Engagement)’의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체 정신을 지닌 혁신적 리더’를 양성한다.

장기근속상·사회봉사상·의학대상·학술상 등 각종 시상식도 진행됐다. 사회봉사상은 노기현 동문(개인부문 진리), 한원일 동문(개인부문 자유), 의학대상은 곽영희 로잘린드프랭클린의과학대학교 교수(학술부문), 박용준 (사)글로벌케어 회장(봉사부문)이 수상했다. 학술상 수상자로는 공과대학 김광범 교수(자연부문), 의과대학 홍명기 교수(의생명부문)가 선정됐다. 장기근속상은 10년(289명), 20년(224명), 30년(147명), 40년(6명) 근속한 교수와 직원에게 수여됐으며 이상의 음악대학 행정팀장(30년 근속)이 대표로 수상했다.

서승환 총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연세대는 창립 150주년이 되는 2035년까지 공동체 정신을 지닌 혁신적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도 135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연세의 ‘진리와 자유를 향한 도전’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녹화 중계로 진행됐다. 기념식 영상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와 유튜브(Youtub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ink: 135주년 기념식(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yRCDqeJFjp8

밴쿠버 간호대 동창회

최명희 선배님, 93세 생신 축하

▲ 최명희(간호 48졸) 동문

밴쿠버 간호대 동창회(회장 우화령, 간호 74입)가 지난 3월 30일 최명희 선배 생신 축하를 겸한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 간 근황을 공유했다.
밴쿠버에서는 두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갖고있다. 3월부터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모임 취소를 고민했지만, 3월생인 최 선배의 생신을 계기로 3월 모임을 진행했다. 5월 모임은 잠정 취소됐다.

이번 모임은 버나비에 위치한 한식당 '한우리' 에서 모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상 근무를 하거나, 한국을 방문 중인 동창들이 있어 더 많은 동문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최명희 대선배의 93세 생신을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했다. 최명희 대선배님은 1993년에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으셨다.

밴쿠버 동문모임에는 보통 10~12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연 1회 참석하는 회원을 포함하면 20명 가량이 활동하고 있다.

▲ 3월 모임을 갖고 있는 밴쿠버 동문들. 왼쪽 앞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우화령 회장.

COVID-19, 동문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May 2020

회장님, 여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걱정들이 많습니다. 뉴욕의 여파가 몰려올까 걱정이 많은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잘 하십시오. 언제나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상훈
필라델피아
회장

이병성
라스베가스 회장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화려한 도시가 암흑의 도시로 바뀌어 많이 조용합니다. 먼저 인사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편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의
샌디에고 회장

회장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샌디에고도 stay-at-home order이후로는 전혀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아직 Stay at home이며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날씨는 좋고 푸른 바다는 사람들을 부르네요. 재상봉도 9월 12일로 연기 했다는데, 미주 총회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모든 게 그 전에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은 컨퍼런스 콜로 매달 하는 임원회를 대신하고 있어요. 모든게 "일단 정지" 상황입니다. 회장님, 건강 하세요

이형숙
남가주 회장

#1

전 과목을 Online 강의로 해서 오히려 더 바빠요. 4월 한 달 내내 집에서 못 나갔고요.ㅎㅎ 비상식량 delivery했어요. 회장님, 부군 님, 모두 안전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규희
남부 총괄부회장

#2

저는 이미 확-찐자 되었네요. 이사회 못했어요. 대학강의를 online으로 하니까 매일 왕복 2시간을 벌었습니다. 학생들과 채팅, 이메일, 컴퓨터 속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 집콕 대비 사놓은 물품들

석현아
시애틀 회장

수고하십니다, 선배님. 제 개인 의견인데 Shelter in home이 끝나도 각 주별로 단체모임을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 회사는 올해 모든 행사 취소했구요. 따라서 각 주마다 100명이나 200명씩 모이는 행사를 어떻게 규정할 건지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말까지 갈지 아니면 풀었다가 2nd wave가 와서 다시 규제를 할지 모르니까요. 저희지역도 5월 중순에 풀릴 거라고하나 아마도 그 이후에도 모임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도 각 사람마다 어느정도 띄어서 앉는다든지요. 다른 지역은 6월말까지 가는 것으로 압니다. 7월달 행사들도 아마 취소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저희는 매장들이 오픈이 되어있는 최전선이라 직원들이 매일 전쟁나가는 심정이었는데, 2월부터 마스크에 이중쉴드에, 이중 장갑, 소독제, 손소독제 해와서 이젠 좀 익숙해지는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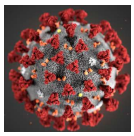
지석열
브라질 회장

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쪽도 사태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정상화되길 빕니다. 이쪽은 이제부터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오윤제
MN 회장

김원자 회장님, 소식 감사합니다. 회장님과 시카고에 있는 동문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 유머 ◈



2020 미주 총동문회 총회

일시: **2020년 8월 14일 (금) ~ 8월 16일 (일)**

주요 행사 일정:

8/13	6:00 pm	환영 석식
8/14	9:00 am	미주 총동문회장, 총장배 골프대회
	7:00 pm	석식 (골프시상, 장기자랑)
8/15	9:00 am	미주총동문회 정기총회
		- 신임회장 선출, 정관개정, 각지회 활동보고
	7:00 pm	윤동주 문학상 시상, 만찬 및 음악공연
8/16	9:00 am	시카고 관광후 해산
8/17	8:00 pm	1박2일 문화관광 출발

각 지역 지회 회장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김원자 미주 총동문회 회장 kimwonjung@hotmail.com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

연 세 대 학 교 미 주 총 동 문 회
Yonsei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U.S.A.
505 E. Golf Rd, STE H, Arlington Heights, IL 60005
President : (847)494-9942 Secretary:(312)375-8328 Fax:(847)357-1359

2020 년 미주 총 동문회 참가신청서

성명 (한글):_____ (영문):_____

학과 및 입학연도:_____학과_____년

소 속 지 회:_____

집 주 소:_____

전 화: _____ e-mail:_____

부부 동반 여부--------(예 / 아니오)

비용항목		해당여부(O)	비 용
참가비	----------		$100/인
호 텔 : 1 인 1 실/부부동반	----------	( )	$135/방
2 인 1 실	----------	( )	$68/인
골프라운딩	----------	( )	$100/인
시카고 관광	----------	( )	$100/인
*1 박 2 일 문화관광	_____	( )	$299/인

총 비 용 $_____

- 호텔 예약은 **Lincolnshire Marriott Resort, 10 Marriott Dr, Lincolnshire, IL 60069 (t)(847) 634-0100** 로 전화 예약하시고, 예약하실 때 **"Yonsei"** 라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사전협의 된 금액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 동문과 2 인 1 실을 같이 쓰기로 하신 분께서는, 해당 동문 성함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Room share 동반자 성함_____
- 부부동반이신 경우는, 행사비용 항목 산정시 2 인 비용을 고려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용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Yonsei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USA**" 앞으로 발행하신 수표를 **1741 Mansie Ct, Libertyville, Illinois 60048**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 세 대 학 교 미 주 총 동 문 회
Yonsei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U.S.A.
505 E. Golf Rd, STE H, Arlington Heights, IL 60005
President : (847)494-9942 Secretary:(312)375-8328 Fax:(847)357-1359

- 행사시 진행할 **SILENT AUCTION** 을 위한 **DONATION** 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의향이 있으신 동문께서는 기부물품 내역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uction 수익금은 전액 미주총동문회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품목: _____

- 행사관련 브로셔에 지면광고 후원을 받습니다 ($100, $250, $500, $1000,$1500). 광고게재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출판미디어 국장 배미순 동문 (2019yonsei@gmail.com) 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 – 호텔의 교통편은 UBER/Lyft 혹은 American Taxi (847) 255-9600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 박 2 일 문화관광은 일리노이 스프링필드(링컨 생가)와 미주리 세인트루이스(마크 트웨인 고향)를 방문할 예정이며, 참여자 25 인 이상이 되어야 시행가능하오니, 많은 동문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행사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사무총장 이재상 (312-375-8328) 이나 동문회장 김원자 (847) 494-9942 혹은 2019yonsei@gmail.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문학동산에서 연세 정신을

모교와 후배들에 위대한 유산 남기도록

연세문화 캠퍼스 조성 기금모금에 동참하자

연세대 동문인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족시인 이자 애국자입니다. 그는 항일운동을 한 죄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서시, 십자가, 별 헤는 밤 등 주옥같은 시는 잠자던 우리의 민족혼을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28세의 젊은 나이에 망국의 서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고결한 행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교 연세대는 동문들의 추억이 깃든 캠퍼스에 '윤동주문학동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미주 총동문회에서도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1인 당 100달러씩 '1천계좌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주동문 여러분!
사랑하는 연세와 후배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금모금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윤동주문학동산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연세정신을 살립시다.

미주 총동문회 회장 김원자

Link: 윤동주기념관 기획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제목을 클릭하세요)
'https://9829f18d-6d14-4f75-ab31-d6e4ff4fae92.filesusr.com/ugd/56e4e2_64633d8b0d7f423aa164524e1c9b6619.pdf

윤동주기념관 기금 모금에

미주동문들이여,

Legacy 를 남깁시다 !!!

1인 $100 이상 1천계좌 캠페인

지역별	계좌수	계좌 참여자
캐롤라이나	1	홍승원(1)
YGCEO	46	김영욱(5), 안병돈(5), 김주연(5), 소피 박(3), 고상미(5), 고동호(6), 김주화(2), 조민래(5), 윤창기(5), 우주희(5)
시카고	44	박 철(1), 박준완(1), 김원자(10), 천병오(2), 김미자(1), 명계웅(1), 이영희(1), 국중석(1), 서영순(1), 배미순(1), 장일웅(10), 정치홍(2), 오정훈(1), 곽 남(1), 유근실(1), 최 준(1), 최창규(2), 문제성(2), 이 영(1), 장승미(1) 김정실 (2)
북가주	2	박재효(1), 이정숙(1)
온타리오	3	서영례(2), 강영숙(1)
워싱턴 DC	4	최연홍(1), 이행훈(3)
아틀란타	1	신순천(1)
뉴욕	5	노충혜(1), 배인순(1), 이군자(3)
남가주	15	권기상(2), 김석원(10), 장정자(1), 남가주 여동문회(2)
새크라멘토	5	허일무 (5)
세인트루이스	4	백도충(2), 황봉희(2)
현재까지 총		**130계좌**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윤동주기념관 기금
출연 약정서

개 인	성 명 : (한글) (영문)
	전공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구 분 : □동문 □학부모 □독지가 □교직원 □학생 □기타( )
기관	상호, 기관명 :
단체	대표자명 :
전 화	휴대폰:
	자 택 : 사무실 :
주 소	주소 :
	E-mail :
출연 약정	출연약정금액: □ 1계좌 $100 □ ( ) 계좌 x $100 □ 기타 ($)
	♣ Mailing Address : 1741 Mansie Ct. Libertyville, IL 60048 Make payable to : Yonsei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Bank Acct Number : 071000013 (RT No) Chase Bank 3800718638 (Acct No) *메모란: 1,000 계좌 갖기 프로젝트 # 기부금은 전액 학교로 전달되며, 동문회 운영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보내시는 기부금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도 지정	□ 윤동주 기념관 기금 □ 기타 후원금 ( )
문의처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 기부금 모금본부 Tel : 847-494-9942

연세를 사랑하고 모교에 Legacy를 자랑스럽게 남기려는 연세대 미주 총동문회의 동문으로서
윤동주기념관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___계좌를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출연신청인 : _____(인 또는 서명) 20 년 월 일

연세대학교 총장 서승환 미주총동문회장 김원자 귀하